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5월 29일

CUOMO 주지사, 기업 단체와 지방 상공회의소에게 TAX-FREE NY 운동에 대해 상세 설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기업 단체와 전국의 상공회의소 대표에게 Tax-Free NY 운동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여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SUNY 캠퍼스 및 뉴욕주 전체의 대학교 커뮤니티가 신규 기업, 신설 기업 및 기타 기업들이 Tax-Free NY 운동을 통해 뉴욕주에 모여들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Tax-Free NY 커뮤니티가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뉴욕주의 업계 리더, 지방 선출 공무원, 대학 학장 등과 협력하는 한편 입법기관이 이 운동을 통과시킨 직후부터 이를 실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련한 상공회의소와 기업 단체의 연합은 대학 커뮤니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뉴욕주 북부 지역에서 새로운 기업과 기업가들을 유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는 상공회의소 대표와 뉴욕주 전체의 기업 단체들과 함께 모여 입법기관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Tax-Free NY 운동의 구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Albany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와 기업 단체는 기업 채용 캠페인을 조율하고 전국의 기업가들이 투자할 Tax-Free NY 커뮤니티를 선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UNY 캠퍼스의 리더들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입니다.

주지사가 오늘 설명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설 캠퍼스: 사설 캠퍼스의 면세 상업용 공간 300만 평방 피트를 Tax-Free NY 운동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독립적인 대학들이 대상이지만 Westchester 북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캠퍼스는 구내의 상업 부지를 지정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절차에 따라 면세 신청을 합니다. 주지사,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선정한 3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캠퍼스를 선정합니다. 기존의 벤처기업 육성 시설을 가진 사설 캠퍼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기존 벤처기업 육성 시설에서 설립된 신규 기업: 뉴욕시 벤처기업 육성 시설에서 “설립된” 신규 기업들은 신규 업체가 아니더라도 면세 커뮤니티로 이주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뉴욕에서 설립된 약 75%의 하이테크 신규 기업이 첫 번째 해에 뉴욕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Korean

전략적으로 배치된 주 소유 부지: Tax-Free NY는 20곳의 전략적으로 배치된 주 소유 부지를 면세 커뮤니티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부지는 3명의 이사회 구성원이 선정합니다.

사기 예방 조치: Tax-Free NY에는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ESD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서 위반은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이 운동에는 “속임수”를 방지하거나 회사가 새로운 이름으로 재합병되거나 기존의 직원들에게 새로운 직무를 할당할 때 엄격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이 운동에는 내부 거래와 이해의 상충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됩니다. 사기 행위가 있을 경우, 뉴욕주는 기업에게 제공한 혜택을 회수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SUNY 캠퍼스 및 주변 지역: 면세 커뮤니티에는 SUNY 캠퍼스 및 캠퍼스에서 1마일 이내에 위치하는 추가적인 200,000 평방피트의 면적이 포함됩니다. ESD는 이 기관이 1마일 이상에게도 면세 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교육 캠퍼스 프로젝트의 경우, SUNY와 ESD가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Tax-Free NY 프로그램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은 ESD가 승인하지 않습니다.

Tax-Free NY에 대한 지원을 표시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리더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Jamie Dimon, JPMorgan의 CEO는 “Tax-Free NY는 우리가 리더에게 바라는 통찰력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은 대학 및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후원해야 할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북부 지역에 있는 신규 유망 업체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enneth Langone, Home Depot 공동 설립자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미국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을 돕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면세 커뮤니티 운동으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eff Immelt, GE의 회장 겸 CEO는 “뉴욕주에 9000명의 직원을 갖춘 기업으로서 Cuomo 주지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합니다. 뉴욕주 대학 시스템, 비즈니스 리더, 기업가 사이의 이러한 협력은 주 전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독창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ohn E Kelly III, IBM Research, IBM의 IBM Research 담당 수석 부사장 겸 이사는 “Tax Free NY는 뉴욕의 대학 커뮤니티에 투자 및 신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SUNY와 뉴욕주 전역의 사설 캠퍼스에서 나노 테크놀로지를 활성화하려는 뉴욕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eather Briccetti, The Business Council of New York State Inc. 사장 겸 CEO는 “뉴욕주 북부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제안에 감사 드리며 상세 정보가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신흥 기술 기업의 사업, 기존의 뉴욕 기업들의 신규 투자, SUN 및 사립 대학들과의 기타 기업 협력에 대해 상당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혁신적인 접근방법이며 뉴욕주가 더 경쟁력 있는 경제 상황을 갖추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ian Sampson, Unshackle Upstate의 이사는 “Cuomo 주지사의 Tax-Free NY 계획은 뉴욕주 북부 지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신규 기업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몇 년 동안 지역사회를 괴롭힌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SUNY 캠퍼스와 커뮤니티 칼리지나 주변에 배치하기로 한 기업을 위한 면세 구역을 조성함으로써 이번 공공-민간 제휴는 뉴욕주의 법인세 현황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SUNY Albany의 College of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과 민간 기업 사이의 제휴로 Capital Region의 일자리 성장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의 계획으로 다른 뉴욕주 북부 지역사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뉴욕주 북부 경제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리더들은 모든 기업체를 위해 추가적인 세금 혜택과 규제 개혁을 입법화해야 합니다. 신규 기업과 일자리 증가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우리 주에 오랜 세월 존재했던 기업과 일자리를 위한 혜택도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ian McMahon, 뉴욕주 경제개발위원회 이사는 “Cuomo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Tax-Free NY” 구축은 경제 발전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이 운동으로 대학교와 기업의 R&D 사이의 제휴를 촉진하고 대학 캠퍼스의 첨단 제조 시설 건설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생긴 일자리는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하이테크 전문직 일자리입니다. Tax-Free NY는 뉴욕의 최대 경제 자산 중 하나인 대학교를 활용함으로써 기술 중심의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고 R&D 투자 및 첨단 제조업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경쟁력 있는 장점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경제개발위원회는 Cuomo 주지사와 경제개발 팀이 이렇게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vid Hochman, Business Incubator Association of New York State, Inc. 이사는 “Cuomo 주지사가 제안한 면세 구역에서는 대부분의 벤처기업 육성 시설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단계의 기업 문제를 다루고 신규 설립 단계를 “벗어날” 준비가 되었으며 더 넓고 영구적인 장소에 있기를 바라는 기업에게 중요한 업무 지속성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분야에 따라 기업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느리게 진행되기도 하며 성공적이지 못했던 기업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기도 하지만 모든 비상 상황을 위한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대학/업계 제휴를 원하거나 능력 있는 학생, 교수진 또는 특수 장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환경을 원하는 기업을 뉴욕주에 유치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도구를 뉴욕주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경제개발은 신흥 기업 육성 시설과 다르지만 매우 중요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안한 대로 채택될 경우, 이 구역은 뉴욕주의 공립 및 사립 대학교가 매우 전망 있는 대학 관련 연구 단지(과학기술 단지라고도 함)를 조성하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유일하게 완전한 대학 연구 단지는 RPI Tech Park(회원 중 하나)이며 Buffalo Niagara Medical Campus가 두 번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SUNY와 다른 지역의 독립 캠퍼스에서

그러한 개발이 진행될 여지가 있으며 제안된 구역은 현재 신속하게 진행 중인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성 기관들은 대학 관련 연구소나 과학 단지과 긴밀하게 협력하므로 개발의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회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게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Garry Douglas, North Country Chamber of Commerce 대표 겸 North Country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공동 회장은 “이번 조치는 Cuomo 주지사가 North Country와 다른 지역의 대학들과 더 강력한 경제 개발 파트너십을 맺도록 돕기 위해 North Country와 다른 지역을 위해 마련한 또 다른 긍정적 조치입니다. 우리 지역의 파트너십은 이미 확고하게 형성되었으며 직접적인 업무 개발 및 기업 유치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Clarkson University와 대화를 진행 중이며 Business School at SUNY Plattsburgh와 Clinton Community College의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완전히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North Country Community College를 Saranac Lake, Malone 및 Ticonderoga의 기회와 연결시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며 North Country는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b Simpson, CenterState 사장이며 센트럴 뉴욕 경제개발위원회 사장 겸 공동 회장은, “주지사의 Tax-Free NY 운동으로 뉴욕의 캠퍼스들은 신규 기업들에게 경제 성장의 엔진이며 중요한 경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면세 구역은 이러한 대학교에서 설립된 신규 기업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om Tranter, Corning Enterprises 사장 겸 남부 구역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공동 회장은 “뉴욕주는 오래 동안 세금이 과도한 곳으로 불렸지만 Cuomo 주지사의 비전과 리더십 덕분에 뉴욕의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Tax-Free NY 커뮤니티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게 혜택을 주게 될 것이며 기업들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방법으로 개선된 대학 네트워크와 함께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세 커뮤니티에서 기업가와 교육자가 제휴하는 것은 주지사가 더 기업 친화적인 뉴욕을 만드는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anny Wegman, Wegmans Food Markets 사장 겸 Finger Lakes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공동 회장은 “다른 주와의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뉴욕이 새로운 기업을 격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Tax Free NY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뉴욕주 시설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효과적인 아이디어입니다.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Howard Zemsky, Larkin Development Group 책임 파트너 겸 뉴욕주 서부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공동 회장은 “Cuomo 주지사의 Tax-Free NY 제안은 뉴욕주 서부가 향후 자부심을 가지도록 할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 지역의 SUNY 대학이 만들어준 경제 기회를 활용하여 수준 높고 오래 지속되는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Tax-Free NY는 뉴욕 서부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믿으며 주지사가 지속적으로 뉴욕주 북부 지역 경제 개발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evin Law, Long Island Association 사장 겸 CEO, Long Island 지역 경제개발위원회 공동 회장은 “Tax-free NY는 롱아일랜드의 교육기관과 제휴하여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시키며 일자리를 창출시킬 혁신적 제안이므로 LIA는 Cuomo 주지사와 입법에 대해 협의하고 롱아일랜드의 사립 대학교도 이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eter Aust, Adirondack 지역 상공회의소 대표 겸 CEO는 “모든 사람들이 뉴욕주 북부 지역의 지역사회가 직면한 경제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채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뉴욕주와 지역사회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인재를 유치하려면 다른 경쟁 후보보다 더 신중하고 나은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기술 부문의 최근 개발은 고등교육 시스템에서의 첨단 연구 및 개발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오늘 발표한 Tax-Free NY 제안은 뉴욕주 전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혁신적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SUNY 대학에 위치하게 될 기업에게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개발 및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Adirondack 지역 상공회의소가 Cuomo 주지사의 뉴욕주 북부 지역 경제 문제를 인식한 것을 크게 반기며 이번 제안에 대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 다른 종합적인 인센티브 제안과 마찬가지로 '사소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므로 향후 제공될 확실한 세부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부 정보가 공개되면 제안된 세금 인센티브는 경쟁적인 뉴욕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생존해온 수 많은 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입법위원의 노력으로 뉴욕 북부 지역이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의 중심시로서 서서히 인식되어 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athryn Wylde, Partnership for NYC의 사장 겸 CEO는 “Cuomo 주지사의 Tax Free NY 제안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뉴욕이 전세계 혁신 경제를 주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립 대학 시스템의 학생들은 기술 및 창의력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기업에 취업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기술 차이를 줄이고 교실을 21세기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aurence Gottlieb, Hudson Valley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사장 겸 CEO는 “Cuomo 주지사가 면세 구역을 만들어 뉴욕 경제에서 기업가 정신을 최대한 활용하게 할 면세 구역을 정해 고등교육 기관을 신규 사업과 투자를 위한 중심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HVEDC는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자유 시장 사업 감각과 교육기관의 지식 자본을 통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Cuomo 주지사, 경제개발팀, Mid-Hudson 지역 경제개발위원회와 협력하여 모든 Hudson Valley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강력하고 업무 중심적인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ichard M. Bivone, Nassau 회장 및 Robert Fonti, Suffolk 회장, Long Island 비즈니스 위원회는 “경제 개발 분야에서 리더십을 보인 주지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Tax-Free NY 프로그램은 이 지역에 신규 업체가 모여들게 하고 롱아일랜드에서의 사업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Nassau 및 Suffolk 카운티의 납세자들에게 장기적으로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Carlo A. Scissura, Brooklyn 상공회의소 대표 겸 CEO는 “Brooklyn 상공회의소는 SUNY 캠퍼스와 주 전체의 대학교가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의 기업이 성장할 기회이므로 Andrew Cuomo 주지사의 'Tax- Free NY' 계획을 지지합니다.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실업률이 더욱 낮아지고 기업가 정신을 더욱 고양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핵심은 SUNY 캠퍼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학교와 기업 커뮤니티 사이의 관계를 쌓아서 뉴욕주의 미래 세대가 뉴욕주에서 일하고 번영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주의 희소식은 Brooklyn의 희소식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ndrew Rudnick, Buffalo Niagara Partnership 대표 겸 CEO는 “Cuomo 주지사의 'Tax-Free NY' 발표는 뉴욕주 북부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제성장 엔진인 SUNY 캠퍼스 주변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제안입니다. 주지사의 제안 중에서 뉴욕, 특히 북부 지역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발전은 실질적인 사업규제 개혁과 명령 구제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Alison Grems, Canandaigua Chamber 회장은 “Canandaigua Chamber는 사업을 확장하고 뉴욕주 북부 지역의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혁신적인 제안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러한 계획이 우리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에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evin Keeley, Chemung 상공회의소 회장 겸 CEO는 “그 어느것도 불확실성의 벽만큼 신규 기업을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시장, 생산, 경쟁, 직원채용과 정부의 불확실성도 마찬가지입니다. Tax-Free NY는 정부의 지원에 대한 확신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이러한 창조적인 운동은 신규 사업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춰줍니다. 따라서 매우 통찰력 있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과 주립대학의 협력에 대해서도 상공회의소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캠퍼스와 꿈을 공유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지역과 대학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확실히 정부, 교육기관, 그리고 업체가 상호협력할 때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실리적인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teve Craig, Commerce Chenango의 회장은 “세금 인센티브는 오랫동안 경제발전 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Tax-Free New York은 놀라울 정도로 모든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orrisville 주립대학의 Norwich Campus 근처의 사무실 공간 공급과 함께 이번 기회는 신규 기업이 Chenango 카운티의 기업가 정신과 기술혁신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훌륭한 인센티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ry Beth Silano, Delaware 카운티 상공회의소의 상무는 “이번 발표는 Delaware 카운티의 소형 사업체에게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는 현재 SUNY Delhi 인근에 있는 벤처기업 육성 시설인 Delaware 카운티 eCenter와 더불어 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Delhi 지역사회에 소규모 신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으며 Delaware 카운티 전체에 대한 물흐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ulie Marchesella, Nassau 상공회의소 회장은 “Cuomo 주지사의 Tax-Free NY 프로그램은 뉴욕주의 경제와 고용 창출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새로운 기업과 기업가를 주의 고등교육기관과 적절하게 연계함으로써 신규 기업이 뉴욕에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뉴욕에 머무르도록 확신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업체에 맞는 새로운 뉴욕을 만드는 것에 대한 Cuomo 주지사의 지도력과 헌신적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eanna Alterio, Niagara USA 상공회의소 대표는 “Cuomo 주지사는 취임 이후 NYS의 모든 지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제안인 Tax-Free NY는 다시 한번 뉴욕을 더욱 더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원동력으로서의 고등교육 기관을 강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젊은 세대들을 뉴욕주 북부 지역과 뉴욕주 서부의 주거지에 더욱 모여들도록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arbara Ann Heegan, Otsego 카운티 상공회의소 대표는 “주지사가 항상 더 세금 부담이 적은 뉴욕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규 기업과 SUNY의 주요 연구 기관을 연결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뉴욕주에서 성장하고 번영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주지사의 Tax-Free NY 프로그램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SUNY 시스템 학교 주변에 면세 커뮤니티를 만듦으로써 주지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기관과 민영 기업을 연결시키고 미래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게 할 경제 활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Sandy Parker, Rochester Business Alliance 대표 겸 CEO는 “Rochester Business Alliance는 Cuomo 주지사가 추진하는 이번 운동에서 보여준 리더십에 박수를 보내며 고등교육 기관과 이들이 후원하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장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Finger Lakes 지역에서 College at Brockport, SUNY Geneseo 및 Monroe, Finger Lakes, Genesee Community Colleges, 뉴욕주의 모든 SUNY 캠퍼스는 이번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뉴욕이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Tax-Free NY” 프로그램은 더 세금이 적고 규제가 완화된 기업 환경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ean McPheeters, Tompkins 카운티 상공회의소 대표는 “이번 발표에 대한 기대가 크며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Ithaca는 대학교 도시이며 Tax Free NY 프로그램은 Cornell 캠퍼스 및 Tompkins Cortland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변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뉴욕 사립대학과 '20개 장소의 뉴욕주 소유지' 300만 평방 피트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와 주 경제의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Tompkins 카운티는 훌륭한 학교, 자연 경관, 활발한 기업 경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기업이 교육기관과 제휴할 경우 제공되는 면세 정책은 어느 지역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상공회의소를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arsha Gordon, Business Council of Westchester 대표 겸 CEO는 “Westchester의 대학교들은 지역사회 경제의 소중한 자원이며 Tax-Free NY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위원회는 Westchester와 전체 Hudson Valley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Cuomo 주지사의 혁신적 운동을 키게 반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of Long Island는 “Cuomo 주지사는 Tax-Free NY로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전략으로 롱 아일랜드의 하이테크 일자리와 혁신적 경제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Colleen DiPirro, Amherst Chamber of Commerce 대표는 “Amherst 상공회의소는 뉴욕주의 기업과 투자를 활성화할 Cuomo의 Tax Free NY 운동을 지지합니다. 대학교를 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허브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연속성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 Buffalo Niagara 지역의 주민들은 주지사의 창의적 비전 덕택에 향상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awrence A. Kushnick, Huntington Township 상공회의소 회장은 “Cuomo 주지사는 “혁신적인 운동”을 통해 신규 기업과 벤처 캐피탈, 신흥 기업들이 SUNY 캠퍼스와 대학에서 완전 면세 혜택을 누리며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개발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신규 기업들은 세금 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접경비에서 30% 이상 절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들이 변화하는 국내외적 상황에서 성장하고 경쟁할 능력을 전환하게 될 것이므로 오랜 숙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erri Alessi-Miceli, Hauppauge Industrial Association(HIA-LI) 사장은 “HIA-LI는 Cuomo 주지사가 Tax-Free NY 프로그램을 만들어 LI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SUNY 시스템과 제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신규 기업들에게 완전한 면세 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경쟁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ichael Watt, Llincs 이사는 “롱아일랜드의 젊은 전문가들을 대변하는 신규 협회인 Llincs는 Cuomo 주지사가 뉴욕주의 기업이 정신을 격려하려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MRI, 휴대용 바코드 스캐너 및 수상 스키가 롱아일랜드에서 발명되었으며 주지사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차세대의 필수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뉴욕 주민들이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LISTnet(Long Island Software & Technology Network)는 “LISTnet는 Cuomo 주지사가 대학교 커뮤니티를 신규 기업 및 투자 중심지로 전환하려는 개발 노력 발표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 커뮤니티는 더 많은 신규 기업, 벤처 캐피탈, 신규 업체들이 Stony Brook University와 같은 곳으로 모이게 할 것이며 CEWIT와 Advanced Energy Center와 같은 곳의 신규 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로써 대학교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기업을 형성하고 성장과 고급 인력 채용에 필요한 지원 및 멘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뉴욕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 될 것이며 주지사는 이 지역과 뉴욕시를 위한 기업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LISTnet의 Comets 프로그램, Mineola의 LaunchPad LI, Accelerate LI 등과 같이 이미 시작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뉴욕시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으며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시에 더 많은 기업들이 모여들어 회사를 세우도록 격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oy A. Hastick, Sr., Caribb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c.(CACCI) 사장 겸 설립자는 “Caribb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와 이사회는 SUNY 캠퍼스와 뉴욕주의 대학교들이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기존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Andrew Cuomo의 'Tax- Free NY' 계획을 지지합니다. 이 계획은 실업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가 정신을 권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을 통해 소수민족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대학교와 뉴욕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여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뉴욕에서 일하고 번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지사의 새로운 운동에 경의를 표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Jamie L. Moore, ADDAPT 대표 겸 회장은 “이 운동으로 기술 혁신의 전통을 이어가고 뉴욕의 미래를 열 신규 하이테크 개발 업체들을 위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또한 신규 기업을 유치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 십 년 동안 뉴욕주 경제의 기반이 되었던 기존 업체를 유지하고 격려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한 성장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DAPT는 Tax-Free NY와 뉴욕주의 산업, 기술혁신, 기술을 촉진할 모든 프로그램을 지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